

대덕벤처 수출, '눈에 띄네'

최악의 경기불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덕밸리 벤처기업들 일부가 수출을 통해 선전을 거듭하는 등 눈부신 성장을 누리고 있다.

대덕밸리 최대위기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에 이들 기업들은 국내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일찌감치 해외로 눈을 돌려 지속적인 시장개척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코스닥시장의 황제기업'으로 불리는 DV R(디지털비디오레코더) 전문 벤처기업인 아이디스(대표 김영달)를 꼽을 수 있다.

아이디스는 지난해 4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올해 역시 '알짜기업'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조금 많은 420억원대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아이디스의 전체 매출액 중 수출규모가 85%에 달하는 등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특특히 재미를 보고 있다.

아이디스 못지 않게 대덕밸리 코스닥 기업인 오디티(대표 이일)의 활약도 눈부시다. 오디티는 지난해 340억원의 매출을 올려 최대의 매출실적을 올렸다. 오디티는 미국과 유럽, 홍콩, 일본, 대만 등 수출 다각화 전략이 매출급증에 기여하고 있다. 이들 코스닥 기업에 버금가는 활약을 보이는 기업들도 있어 화제다.

가장 눈에 띄는 기업은 광학부품 전문 벤처기업 해빛정보(대표 박병선). 해빛정보는 지난해 4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올 들어 광디스크 시장과 휴대전화시장의 활황에 힘입어 회절격자와 적외선차단필터(IR Cut-off Filter)등의 물량이 급증해 올해 100억원대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광통신 전문 벤처기업 빛과전자(대표 김홍만)도 지난해 100억원대 매출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에는 200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겠다는 자신감에 차 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광시장이 거의 사장된 상황에서 올린 성과라는 데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밖에 적외선 수신 모듈 전문 벤처기업 레이트론(대표 김동철)도 지난해 500만불 수출탑 수상기업답게 올해 70억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매출액 중 90%(60억원)가 수출을 통해 거둬들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레이트론은 내년에는 수출 다변화를 통해 15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대덕밸리벤처연합회 임채환 고문은 "국내경기의 장기불황에 따라 대덕밸리 벤처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지향점은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수출에 있다"면서 "단기적인 전략에 의한 것이 아닌 장기적인 계획과 전략에 따라 수출지향 경영을 펼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 신제품 · 신기술 ■

락싸, 바이오 피드백 훈련제품 'CANS3000' 출시

대덕밸리 생체신호계측 전문 벤처기업 락싸(대표 배병훈)는 뇌파와 심전도를 이용한 바이오피드백 훈련제품 'CANS3000'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학생들의 뇌파와 심전도 신호를 측정해 학습능력과 스트레스 정도를 분석한 뒤 부족한 부분을 바이오피드백 훈련을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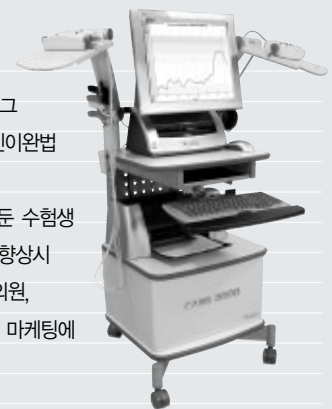
바이오 피드백을 시행하면 사용자의 집중력 정도가 화면에 나타나며 명상에 몰입할수록 자신의 집중력 상태가 증가하고 이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집중의 여부를 몸으로 익힐 수 있다.

또한 심신이완을 유도하는 복식호흡과 함께 심전도 바이오 피드백 훈련을

시작하면 사용자의 심신이완정도가 그

래프로 표시돼 자신에게 맞는 심신이완법을 찾을 수 있다.

배 대표는 "이 제품은 수능을 앞둔 수험생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며 "앞으로 병원과 한의원, 클리닉센터 등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마케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국상해중소기업전(SME)2003’ 참가

협회는 국내 여성기업과 3000만 중국 중소기업과의 연대 강화 및 비즈니스 지원을 위해 오는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중국 상해에서 개최되는 ‘중국상해중소기업전(SME)2003’에 한국관을 구성, 참가한다.

이번 한국관에는 우암닷컴(대표 송혜자), 애듀미디어(대표 최옥현), 케이블렉스(대표 김태희), 블루테크(대표 임창문) 등 총 10개의 우수여성벤처기업이 참가한다.

한국관은 국내 무역촉진을 목적으로 업체당 정부(중기청)의 부스 임대 및 설치비용이 지원된다. 또한, 현지 바이어 및 프랜차이즈를 초청, 1:1상담회 및 상해 유명 산업지역 방문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중국상해중소기업전(SME)2003’ 참가는 적은 비용으로 중국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채널을 형성하고 국내 및 해외 투자기관의 투자유치 기회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회원사 소식

- 베틀라이센싱(대표 배형미)는 지난 11월 3일부터 11월6일까지 ‘도쿄2003아시아라이센싱쇼’에 참가했다.
- 1:1 매칭율(%) 제공의 차세대 온라인채용포털업체 커리어 탱고(대표 홍승녀)는 지난 10월 21일부터 오는 11월 25일까지 ‘2003전국대학도탈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신규회원사

<p>dadam MARKETING Co.</p> <p>회사명 : 다담마케팅 대 표 : 최혜경 전 화 : 02-577-9902 홈페이지 : www.dadammarketing.com</p> <p>다담마케팅은 마케팅 컨설팅 전문업체로 홍보대행, 마케팅서비스, 경영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p>	<p> HAKYUNG DIGITAL 하경디지털</p> <p>회사명 : 하경디지털 대 표 : 성미애 전 화 : 02-541-3258 홈페이지 : www.hkdigital.co.kr</p> <p>하경디지털은 웹사이트개발 및 구축, 웹비즈니스, 모바일비즈니스전문업체이다.</p>	<p> DIGITAL SOFTWARE</p> <p>회사명 : 디지털소프트웨어 대 표 : 김미경 전 화 : 02-561-0456 홈페이지 : www.dgsoft.co.kr</p> <p>디지털소프트웨어는 멀티미디어 통합솔루션인 화상솔루션과 자비솔루션을 상용하여 e-business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하는 기업이다.</p>
<p>azoomma.com</p> <p>회사명 : 이너스커뮤니티 대 표 : 황인영 전 화 : 02-569-9910 홈페이지 : www.azoomma.com</p> <p>이너스커뮤니티는 아줌마닷컴, 홈앤라이프닷컴, 초록아이 등 생활 밀착형 사이트들을 운영하고 있다. 동호회, 이칼리지, 전자상거래, 온오프라인 유통망 운영 등 아줌마 계층의 e-Life를 풍성하게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p>	<p>Betty licensing</p> <p>회사명 : 베틀라이센싱 대 표 : 배형미 전 화 : 02-3444-3402 홈페이지 : www.bettyliceng.com</p> <p>베틀라이센싱은 라이센싱 사업 및 상품디렉터, 마케팅, 전문작가 매니지먼트 등을 중심으로 캐릭터의 개발, 브랜드 사업, 유무선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p>	<p>T&Life system</p> <p>회사명 : 티앤라이프시스템 대 표 : 박선영 전 화 : 041-530-1600 홈페이지 : www.tlssystem.com</p> <p>티앤라이프시스템은 희아론산 정제기술, 무기항균제, 인공이식제 등 의료용 재료를 개발하고 있다.</p>